

비움의 강박 버리고 예술로 자유 모색

시각소통작가 손노리 씨 첫 개인전
7월 1일~5일 대구 봉산문화회관서



시각소통작가 손노리 씨의 개인전 포스터

“마음공부를 접하면서 불성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자기 성찰도 했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 항상 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안고 살았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웠죠. 그런데 어느날 이 모두가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바꾸자고 생각하니 나를 있는 그대로 증명하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반드시 놓아야 한다는 그 마음마저 버리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시각소통작가 손노리 씨는 자신이 미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불자인 손노리 작가가 7월 1일~5일 대구 봉산문화회관 3전시실에서 '노리를 우짖고'라는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연다.

작가는 버려진 것이나 그 기능을 다한 물건들을 분해한 부품, 조각 등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물건들을 조합해 작품을 만들어낸다. 스스로 시각소통작가라고 말하는 그는 다양한 방식의 결합물들의 형상을 재현해낸다.

이런 작가가 불혹의 나이를 넘기며 작가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나다움을 발견하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그 나름의 규칙이 있지만 ‘아름다움’에는 규칙도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다만 저마다의 관점이 있을 뿐이죠. 아름다움을 찾고 스스로가 누구인지 아는 동시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작업이 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작가는 버려진 부품들을 재사용해 생명을 불어 넣은 설치, 평면 페인팅, 오브제를 활용한 입체, 반입체 작품 등 40여 점의 작품을 탄생시켰다. 특히, 가구를 활용해 완성한 ‘두넛노크’는 안쪽으로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을 배치해 세상을 표현한다. “문이라는 것은 환경과 인간을 분리하는 존재죠.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문 때문에 안과 밖이 생기기 때문에 순수 그 자체를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문 안쪽은 오목거울과 볼록 거울을 붙여 대상과 자신을 보기 힘든 현실을 표현해보았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색채심리치료사, 특수 미술치료교육 등을 지도해온 작가는 자신의 안과 밖을 관찰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작품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053)661-3500

정혜숙 기자

사찰음식 면역력 UP... ‘메르스’ 이겨요

사찰음식 전문가 3인이
권하는 여름 보양식

중증호흡기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세상을 휩쓸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식으로 알려진 사찰음식을 통해 면역력도 기르고 여름철 더위를 길러 보는 건 어떨까. 사찰음식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사찰음식으로 면역력을 기르고 여름철 건강도 챙겨보자.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은 방아잎 마지짐과 도토리 수삼 냉국을 권한다.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한 방아는 예로부터, 절간이나 마을 빈터 곳곳에서 잘 자라는 자생력이 매우 강한 식물이다. 스님들은 장독대 된장, 고추장 향이리에서 장을 펴와 밀가루 반죽에 풀어 넣고 애호박, 표고버섯 송송 썰어 넣고 방아장떡을 즐겨 부쳐 먹었다.

스님은 “식용유가 아닌 들기름으로 반드시 부치기에 온 절간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더위 속에서 하얀거 옹병전진을 하느라 기력이 떨어진 스님들에게 여름철 입맛을 다시는 여름철 건강보양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아는 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 환자에게도 매우 좋으며 또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 여름철에 안성마춤인 식재료이다.

도토리 수삼 냉국은 도토리묵과 함께 자양강장 식품인 수삼을 갈아 넣어 만든 음식으로 소화흡수를 높인다는 점에서 여름철 보양 음식으로 충분하다.

적문 스님은 “요즘처럼 질병이 도는 시기에는 면역력 강화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도토리 역시 설사를 멎게 하는 지사제로서의 효능이 뛰어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성인병 예방과 피로회복에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칼로리는 낮은 반



쌈바귀 김치. 쌈바귀는 폐의 열을 내려준다.



방아잎 마지짐은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보양식이다.



감자상추불독전. 상추는 열을 식히고 면역력을 길러준다.

적문 스님-방아잎, 기력 보강에 도움

계호 스님-쌈바귀, 폐의 해열 작용

선재 스님-상추밀동, 인체저항력 높여줘

면 포만감은 크기 때문에 비만방지에 도움이 된다. 수삼의 다양한 효능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수삼은 기를 보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강조한다.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쌈바귀 김치와 오이소박이 물김치를 추천한다. 특히, 섬유소가 풍부한 쌈바귀는 해열과 체내의 염증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계호 스님은 “메르스의 경우 일반 독감에 비해 폐

렴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른데 쌈바귀는 폐의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어 폐렴치료에도 많이 쓰인다. 또 쌈바귀 특유의 씹쓸한 맛은 여름철에 잃어버린 식욕을 되살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백하고 시원한 향을 지닌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 탈수를 막아주고 체온을 내려주는 여름철 필수 식재료다.

계호 스님은 “오이에 풍성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는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해서 근래 더욱 주목받고 있다. 메르스는 건조하고 더운 중동지방에서 발생한 질병이기에 체내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비타민C로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오이소박이 물김치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 스님은 상추의 밀동을 그대로 요리한 감자상추불독전과 보리감자죽으로 버무린 가지열무김치를 권한다. 특히, 감자상추불독전은 상추대국을 손질해 감자를 갈아 메밀가루에 반죽해 구워낸 여름 별식이다.

선재 스님은 “메르스는 열로 인해 발병하는데 여기에는 상추 음식이 제격이다. 상추 불독전은 이름 그대로 상추를 먹으면 힘이 불뚝 솟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추의 넓은 잎은 열을 식혀주고 밀동의 미끈하고 하얀 진액은 면역력을 높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여름에는 미끈미끈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셨다. 그러니 여름철에는 오이, 가지, 보리, 근대 등 미끈미끈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여름철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사찰음식 전문가 3인이 추천하는 음식으로 기력을 보충해보자. 또한 장기적으로 메르스 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는 지혜도 발휘해보자.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꽃들 만나 형상 이루면 인연이

이수에 작가 일본서 개인전...7월 1일~12일까지 에히메현 미술관서

‘인연과의 원리’ 꽃으로 표현

연화장세계 등 10개 파트... 730점 전시

불화작가 이수에 씨가 일본에서 첫 해외전시를 갖는다. ‘인연’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는 7월 1일~12일 일본 에히메현미술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한국전통 단청문양과 연꽃, 보살화문양 등을 모티브로, 연화장세계를 10개의 파트로 나누어 표현한 73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은 낱알의 개체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형상을 통해 인연을 표현하고자 했다. 사용된 꽃조각과 문양이 그려진 동글거나 네모진 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를 상징하며 이것들이 한데 모여 이루고 있는 다양한 형상들은 수많은 인연의 모습을 작품으로 담아냈다고 작가는 강조한다.

“이 세상의 모든 개체와 현상들은 제각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因)으로서, 때로는 연(緣)으로서, 때로는 과(果)로서 서로 얽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인연에 의해 잠시 만들어진 모습으로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죠. 고정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므로 영원한 것도 없죠. 다만 인연에 의해 그렇게 보일뿐이며 인연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현상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꽃(因)들이 만나(緣) 만들어 내는 큰 형상(果)은 모두 인연의 모습이다. 그리고 각각의 작품에서 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를 상징한다. 그래서 108번뇌, 무정(無情), 자비의 마음, 삼라만상과 일체제법 등을 파트별로 나누어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작가는 “꽃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가 때에 따라 달



불화작가 이수에 씨가 일본에서 첫 해외전시를 갖는다. 작가는 한국전통 단청문양과 연꽃, 보살화문양 등을 모티브로, 부처님이 상주하는 연화장세계를 10개의 파트로 나누어 표현했다.

라진다는 것은 꽃이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일체 모든 존재의 내면 깊은 곳에는 불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의 지금 모습 그대로가 부처일 수 있기에 이번 작품에서는 꽃으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수에 작가는 동국대 미술학부에서 불교미

술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곱 번의 개인전을 통해 한국 불교미술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폭넓은 대중성을 동시에 겸비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제32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02)462-9994

정혜숙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